

문병란 삶·정신 계승 도서관 건립 추진

서은문학연구소, 조선대와 협의 기증도서 3만여권도 비치 예정 문학강연 등 인문학강좌 개설

문병란 시인(1935~2015)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했던 남도가 배출한 대표 시인이다. 그는 평생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을 바라보며 문학을 매개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그를 일컬어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고(故) 문병란 시인

"나더러 녹두꽃을 아느냐 물으면/ 차마 두려워 모른다 한다.// 나더러 녹두꽃을 노래하라 하면/ 차마 죄스러워 모른다 한다..."(문병란 '녹두꽃 사연' 중)

문병란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문병란 도서관'(가칭·도서관)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은문학연구소(문학연구소)는 문병란 건립 1단계로 문병란 시인의 삶과 작품 정신이 응결된 도서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학연구소 공육동 고문에 따르면 일차로 도서관을 마련하고 차후 장기 계획으로 문학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고문은 "생전에 선생님(이)이 조선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조선대에서 평생교육원 빈 강의실, 인문대 강의실 등 적당한 공간을 할애해준다면 그곳을 도서관으로 사용할 예



'문병란 도서관'을 추진 중인 서은문학연구소가 지난 2019년 개최했던 문학제.

정"이라며 "리모델링 비용이나 제반의 비용은 서은문화회 회원들 모금을 통해 충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학연구소 측은 최근 100여 명의 문화회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전개했다. 기존에 문학관 건립을 위해 모아두었던 후원금 820여만원(2020년 5월까지)과 이번 모금을 통해 1035만 원 가량이 답지해 현재 1855만원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문학연구소 측은 이번 모금 목표액 1000만 원이 조기에 달성될 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학연구소 측은 도서관 공간이 마련되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기증도서 3만권도 비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문병란 시인의 책을 비롯해 회원들의 기증 서적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도서관이 마련되면 이곳에서 문학강연을 비롯해 창작 강의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도 개설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도서관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선대 측과 접촉을 하고 있다. 생전의 다양한 민주화 운동과 창작 활동은 '문병란'이라는 브랜드로 수렴되기 때문에 조선대와 협의가 잘 된다면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학연구소 측은 하반기 무렵에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황일봉 이사장은 "원래는 서석 초등학교 빈 강의실로 들어갈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그보다 선생님이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후학을 가르쳤기에 조선대 빈 강의실에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회원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대 측에 장소만 제공해 주면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은 문학연구소에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선대의 교무회의나 총장,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하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MZ세대가 겪는 미래 불확실 해결 방안은

김다경 작가 '서른 살 목화' 펴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는 하나의 일계점을 맞이한 모양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빈부의 간극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양상이다. 빈부의 대물림 시대를 살고 있는 MZ 세대는 사상 유례 없는 취업난을 겪고 있다."

작가의 말은 2022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오늘의 MZ세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김다경 작가의 장편 '서른 살 목화'(도화)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소설은 MZ세대 이목화가 주인공이다. 이목화 부모는 서울 근교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다 빚보증으로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다.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목화는 기숙사로 들어가고 오빠는 휴학하고 군에 입대한다.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지만, 시험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고향으로 내려온 목화는 친척별 되는 이가 말레 이시아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그



곳으로 떠난다. 골프장에 취업하지만 속식을 제공하는 조건 때문에 원급은 보잘 것 없다. 그곳에서 제과제빵을 만드는 셰프 왕하오와 사랑을 하게 된다.

소설은 목화를 통해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들을 그려낸다. 목화는 자신의 뜻과는 거리가 먼 곡절의 길로 들어서는데, 이야기는 한편의 논픽션처럼 생생하다.

이기호 소설가는 "충실한 취재와 그에 대한 생생한 묘사, 선입견의 표장을 날달이 벗겨낸 문장들이 그 자화상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 목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김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역 일간지 증편소설 공모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지금까지 장편 '순바의 여인', 창작집 '공중도시' 등과 에세이 '산티아고, 영혼을 부르는 시간' 등을 펴냈으며 광주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희석 전남대 명예교수 내달 2일 정년 출판기념회

전남대 중문과 양희석 명예교수의 정년 기념 출판회가 오는 4월 2일 오전 11시45분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열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책을 주제로 정담을 나누는 자리로 40년 교학상장의 길을 무사히 걷게 해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교수는 이번 기념회에서 저서 '행인기행', '노자 도덕경', '장자 내편'을 소재로 정담을 나누는 예정이다.

'행인기행'은 저자가 직접 쓴 글과 찍은 사진을 실은 에세이로 지난 40년 간의 학자로서의 삶을



담고 있다. '노자 도덕경'은 노자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 기존 주석과 해석을 넘어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장자 내편'은 "도의 소산인 인간은 도와 함께

하는 '용혼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는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 문의 010-2886-320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정신 역사성으로 공동체 견인해야"

서구문화원 세미나서 제기

광주정신의 역사성을 근간으로 공동체를 견인하는 보편성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8일 광주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주최한 '광주 문화유산 그 가치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 문화유산 그 가치를 만나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렸다.

이제표 전남도문화재위원은 "선비정신과 광주정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에서 광주정신의 연원을 찾고 이후 기묘사화, 임란의병, 동학농민운동, 항일의병전쟁,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며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광주정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특히 "기묘사화에서 호남사람은 절의 정신을 구현할 토대를 마련했는데 이는 동학농민

운동의 탐관오리 숙청, 일제강점기 항일의병 등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에는 조선의 선비정신이 있었고 호남사람의 인물로 최부, 송흥, 이항을 비롯해 박상, 최산두, 송순, 양팽손, 고운 등이 중종대 중요한 역할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료는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이사장이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정신의 정신사적 탐구 차원에서 광주정신의 형성사를 밝히고 광주정신을 여전히 살아있는 의미로 확장하기 위해 현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용 이사장은 광주에 대한 박제된 기억보다는 진정한 광주의 희망이 오도록 기억의 재생과 재창조를 역설했다. 특히 그는 "광주정신이 자유, 평화, 공동체와 같은 자부심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인면보다는 안타깝게도 불통, 보수, 폭력, 무거움 등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다음달부터

소장작품 구입 공모 나서

전남도립미술관이 4월 1일부터 2022년 제1차 소장작품 구입 공모에 나선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는 소장품 확보를 위해 매년 소장작품 공모를 하고 있다.

구입 대상 작품은 한국 근·현대미술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미술사적 대표작품, 전남 미술사 맥락을 살릴 대표작품, 전남지역의 역사나 자연적 특징을 소재로 한 작품 혹은 야외 조각, 설치 우수작품, 공공미술 등 미술사적 의의가 있거나 미술관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작품이다. 또한 역량 있는 중진 작가와 39세 미만 청년 작가의 작품도 접수한다. 이 경우 전남지역 출신을 우대한다.

작가, 작품 소장자, 화랑, 법인 관련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작품 수는 개인 신청자는 1점, 화랑·법인 신청자는 최대 2점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참조.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유승 작가, GB스튜디오탐방 인터넷 공개

올해 첫 번째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정유승 작가를 만난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정 작가 작업실에서 촬영한 인터넷 영상을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에서 28일 공개했다.

사회 안에서의 차별과 부당함, 소외된 것들에 주목해온 정 작가는 설치, 영상, 아카이브 등 다층적인 조형 언어로 작업해 오고 있다.

정 작가는 2018년 제 12회 광주비엔날레에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와 공간을 소재로 한 '집결지의 낮과 밤', '언니네 상담소' 등을 출품한 것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술과 영상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과 교환, 자본 등 사회·정치적인 영역으로 관심을 확장, '거레내역서' 등의 작품을 통해 예술가의 노동과 작품 가격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있다.

전남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정 작가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등의 다수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4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재단은 작가 연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정유승 작가를 상해 복단대 대학원 문화재박물관학과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혼 비평가와 매칭했다. 작가 연구 결과물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카드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